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김 경 량

목 차

| | |
|----------------------|----|
| I. 서론 | |
| II.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 | |
| 1. 『논리-철학논고』에 대하여 | |
| 2. 언어의 한계, 그리고 그 신비함 | |
| 3. 그림으로서의 언어 | |
| 4.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 | |
| III.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 |
| 1. 본인의 전기 철학에 대한 비판 | |
| 2. 언어게임이론 | 8 |
| 3. 가족유사성 | 9 |
| 4. 도구와 같은 언어 | 10 |
| 5. 사적 언어 논증 | 10 |
| IV. 결론 | 11 |
| 참고문헌 | 13 |

비트겐슈타인(1889-1951)은 철학사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낸 20세기의 철학자이다. 이 중요하고 큰 흐름이란 바로 '분석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이었다. 분석 철학은 철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학의 모든 문제가 언어 때문에 생겨난다고 보았다.

분석철학은 20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영어권, 그리고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서 지배적이며, 그 영향권을 확대해가고 있다.

분석철학이라는 이름 속에는 다양한 경향이 포괄되어 있다. 러셀에서 시작하여 비트겐슈타인, 카르납과 그 후의 일부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형식언어(形式言語)의 구축을 통한 의미분석, 무어의 철학적 언어의 명료화에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일상언어의 의미분석을 시도하는 라일, 오스틴 등 일상언어학파(日常言語學派)의 활동, 검증 원리를 토대로 하여 철학의 과학화를 시도하는 술리히, 바이스만, 파이글 등의 논리실증주의자들, 그리고 콰인, 스트로슨 등 논리학과 언어학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리에 관한 새로운 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최근 20여 년 간의 철학적 업적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양하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들 철학적 활동은 모두가 논리적·언어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데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이들은 모두 분석철학이라고 불린다.

자연과학의 압도적인 업적은 철학자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데카르트 이후 서양철학이 그 고유한 탐구 영역으로 삼아왔던 정신(精神)이 실험심리학의 발달로 자연과학화함으로써 철학은 정체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다. 물리학이나 생물학, 언어학이나 심리학 등의 분과학문들을 모두 경험적으로 포착되는 세계의 어느 한 부분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1차 학문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이들 1차 학문들의 논리적·개념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2차 학문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대두된다. 그런데 1차 학문들의 논리적·개념적 체계는 언어로 구성된 진술체계이다. 따라서 2차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지적 행위는 1차 학문들의 진술체계, 즉 언어체계에 대한 분석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철학에서의 이러한 혁명을 최초로 강력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이다. 1921년에 발간된 『논리-철학논고』에서 그는 “철학의 모든 것은 언어비판(言語批判)이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이 선언이야말로 철학의 새로운 자기이해, 즉 분석철학의 가장 집약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언어는 그 다의성과 애매성으로 하여 언어가 가지는 참된 논리적 구조를 감추고 있으며, 따라서 언어의 외형만 가지고는 그 참된 의미를 알아낼 수 없으므로, 언어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참된 논리적 구조를 드러내는 인위적 언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공적으로 구성된 이상언어(ideal language)에서는 모든 애매성과 다의성이 배제되며, 언어적 표현의 표층적인 문법적 형식은 그것의 심층적인 논리적 구조와 일치한다. 프레게나 러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을 포함한 많은 철학자들은 진리함수적 논리(Truth-functional Logic)야말로 언어의 참된 심층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일상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공언어로 옮겨놓아 감추어진 논리적 구조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철학자들의 이른바 환원적 분석(Reductive)의 핵심이다.

그러나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환원적 분석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인공언어가 과연 일상언어의 골격을 만족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상언어의 기능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원적 분석관을 정초했던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어떠한 완벽한 인공언어도 일상언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라일, 오스틴 등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면서,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그것이 쓰이는 구체적인 삶의 테두리, 즉 삶의 양식을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 철학은 1919년에 발표된 『논리-철학논고』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후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기 철학은 그가 죽은 후 1953년에 발간된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많은 면에서 『철학적 탐구』는 자신의 전기 철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의 철학이 기존의 전통적 철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철학적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했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모두 해결했다는 철학적 문제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은 삶의 의미 또는 실존과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는 기존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삶의 의미’에 대해 묻기 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한 낱말, 한 문장 등이 의미를 지닌다는 게 무엇인지를 문제 삼았다. 이는 논리, 세계 언어 전반을 다루는 것이다.

1. 『논리-철학 논고』에 대하여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논리-철학 논고』에 대해 살펴보자. 이 저서를 펼치는 순간 대부분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다른 책이 절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번호가 부여된 짧은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많은 명제들 중 가장 큰 명제를 ‘대명제’라고 칭하겠다. 이 책은 크게 7개의 대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대명제들에 대한 진술을 그 아래에 나열하고 있다. 예컨대, n.1, n.2, n.3 등의 명제들은 n번 명제에 대한 진술들이다. 그리고 n.m1, n.m2 등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의 명제들은 n.m번 명제에 대한 진술들이다. 7개의 대명제는 아래와 같다.

1.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¹⁾
2. 일어나는 것, 즉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다.²⁾
3.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이다.³⁾
4. 사고는 뜻이 있는 명제이다.⁴⁾
5.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이다. (요소 명제는 자기 자신의 진리 함수이다.)⁵⁾
6. 진리 함수의 일반적 형식은 $\{ \bar{p}, \bar{q}, N(\bar{r}) \}$ 이다. 이것이 명제의 일반적 형식이다.⁶⁾
7.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⁷⁾

1번과 7번 명제 사이에 나오는 여러 명제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 언어, 의미, 논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와 함께 자연과학, 수학, 철학, 윤리학과 미학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으며,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2. 언어의 한계, 그리고 그 신비함

『논리-철학 논고』의 최종 결론인 7번 명제를 통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논리-철학 논고』의 핵심 개념이라는 것을 알

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역, 책세상, 2008, p19

2) 같은책, p20

3) 같은책, p27

4) 같은책, p39

5) 같은책, p64

6) 같은책, p95

7) 같은책, p117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의 머리말에서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사고의 한계를 긋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말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고의 한계 밖에 있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사고의 한계는 오직 언어에서만 그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한계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의 명제들’이다(6.53). 예컨대 윤리학과 미학의 명제는 발화(發話)할 수 있을 뿐,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의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열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파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것이다(6.522).

3. 그림으로서의 언어

비트겐슈타인은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유의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그림으로써 사유의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렇게 어떤 명제는 뜻을 지닐 수 있고 또 어떤 명제는 뜻을 지니지 않을 수 있다.

『논리-철학 논고』에 의하면, 뜻이 있는 명제는 어떤 사실에 대한 그림이다. 이러한 주장을 ‘그림 이론’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이론을 1차 세계대전 참전 중에 한 신문기사를 보고 떠올렸다고 한다. 그 신문기사는 자동차 사고에 관한 프랑스 법정의 재판 과정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그 법정에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 모형, 건물 모형, 사람 인형 등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모형들이 사고를 재현하듯이, 명제도 사실을 재현하고 묘사한다는 것이다.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2.01)이다. 또한 『논리-철학 논고』의 구문론에 따르면 언어는 명제들의 총체(4.001)이고,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5)이며, 요소 명제는 이름들의 연쇄(4.22)이다. 『논리-철학 논고』의 존재론과 구문론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 대응하는 것은 언어이다. 그리고 사실에 대응하는 것은 명제이고, 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요소 명제이며, 대상에 대응되는 것은 이름이다.

존재론과 구문론이 제시되면 비로소 그림 이론이 주어진다. 명제는 사실에 대한 그림으로서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명제가 그림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과 어떤 일정한 형식, 즉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실은 명제에 투영되어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논리적 형식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음반, 악상, 악보, 음파의 비유를 든다. 외견상 이것들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공통적인 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4.014). 그래서 음악가는 악보로부터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고, 음파는 악보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명제는 사실이 어떠어떠하다는 뜻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명제는 뜻있는 명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이다’는 날씨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4.461). 이런 것을 동어반복이라고 한다. 또 ‘비가 오고 오지 않는다.’와 같은 모순도 뜻을 결여한다. 이러한 동어반복 명제나 모순 명제가 왜 뜻을 결여하는지 설명하려는 것이 진리함수 이론이다.

동어반복이나 모순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라는 점에서 뜻있는 명제들과 유사하다. 또한 요소 명제들의 진리치, 즉 참 또는 거짓이 모두 결정되면 동어반복과 모순, 그리고 다른 명제들은 모두 진리치가 유일하게 확정된다. 반면에 동어반복과 모순은 가능한 어떤 상황도 묘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그림이 아니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다(4.462). 논리학의 명제들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라는 점에서 뜻있는 명제들과 유사하지만 ‘뜻을 결여하는 sinnlos’ 명제이다. 반면에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가 아닌 명제들은 모두 ‘무의미한 unsinnig’ 명제이다. 『논리-철학 논고』에서 ‘말 할 수 없는 것’은 뜻을 결여하거나 무의미한 명제들이다.

4.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리-철학 논고』는 존재론, 구문론, 그림 이론, 진리함수 이론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그는 철학적 문제와 실존적 문제에 대해 ‘유아론’으로 답하고 있다. 유아론이란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주장을 결론으로 지니는 논변들을 말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다만 그것은 말해질 수는 없고, 스스로 드러날 뿐이다(5.62)”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라는 말로 유아론을 표현하고 있다.

Ⅲ.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1. 본인의 전기 철학에 대한 비판

비트겐슈타인이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떠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미 그의 책 『논리-철학 논고』는 철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으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계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논리-철학 논고』가 철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고 있을 때 오히려 비트겐슈타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인은 『논리-철학 논고』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일상 언어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처방전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상상적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의 오류를 인식하고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서 「논리적 형식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세계를 매개하는 단일한 논리적 형식이 있다는 『논리-철학 논고』의 주장을 포기하며, 언어와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논리적 형식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단일한 논리적 형식이 있다는 것은 세계와 언어를 지나치게 획일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세계에 관하여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사물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는 한 예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들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어렸을 적 언어를 배우던 기억을 회상하며, 언어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그 대상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습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방법을 직시적 정의에 의한 가르침이라 부른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직시적 정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모든 언어습득의 기초가 된다는 주장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직시적 정의는 상당한 배경 설정을 요구한다. 또한 지시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설령 특정 사례의 직시적 정의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사례와 유사한 다른 사례로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비트겐슈타인에게 이러한 직시적 정의는 수많은 언어 사용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언어는 단순히 세계를 표상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매개에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는 우리가 여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용구들을 한데 모아놓은 도구상자와도 같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언어를 기관실의 레버로 비유하였다. 단어들은 서로 모양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들이 모두 동일한 종류의 기능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기관실의 레버들처럼 그 유사성을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어들의 의미는 단어들이 지시하는 대상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사용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언어는 밑바닥에 있는 본질, 즉 공통분모 또는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언어를 조사해보면, 우리는 여러 다른 맥락에서 작용하는 중첩된 기능들을 발견하게 된다. 언어는 우리의 삶의 형식, 즉 그 다양한 사용들을 통해 발전된 사회적 규약들 안에 붙박혀 있다.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말들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게 된 방식에 의해 지배된다. 사용의 맥락, 즉 삶의 형식에서 벗어나면 말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전기에 주장했던 ‘언어그림이론’을 버리고 후기에는 ‘언어게임(놀이)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사고와 언어의 세계가 공유하는 ‘논리적 형식’이 하나 있으며 철학자라면 그것을 발굴하고 드러낼 수 있다고 한 전제를 자신이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그의 사후에 출판된 『철학적 탐구』에서 드러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통찰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명제들이 유의미해야 하는 경우 외견상 현존함에 틀림없는 말들과 대상들의 관계에 관한 물음, 어떤 명제의 의미와 이것에 의해 생각되는 것의 관계에 관한 물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말의 의미가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다.

『철학적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파리가 갇혀있는 병에서 그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파리를 꺼내주는 일을 자신의 역할로 본다. 그는 철학자들은 파리처럼 뒹뒹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언어가 할 수 없는 일을 언어로 억지로 시도하다가 스스로 갇혀버린다고 생각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언어의 마법에 걸렸다고 표현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철학적 문제들은 언어가 ‘휴가를 떠날’ 때에 생겨난다.”고 표현하였다. 철학적 문제는 말을 부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의 다른 방법은 언어의 실제적 사용에 귀를 기울이지는 것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반드시’기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언어가 ‘실제로’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언어가 사용되는 몇 가지 방식들을 확인시켜주면서 사고와 유의미성의 한계들에 주목하게 하였다. 이 방식의 많은 부분이 언어의 본성에 관한 그릇된 이론들을 제거하는 일을 포함한다.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언어의 본성에 대한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2. 언어게임(놀이)이론

예를 들어 우리가 ‘놀이들’이라고 부르는 과정들을 한번 고찰해 보라. 나는 판 위에서 하는 놀이들, 카드놀이들, 공놀이들, 격투 시합들 따위를 뜻하고 있다. 무엇이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인가?—“그것들에는 무엇인가가 공통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놀이들’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들 모두에 공통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를 보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들을 주시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에 공통적인 어떤 것을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유사성들, 근친성들은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우 많이. 이미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말했다시피 : 생각하지 말고, 보라!⁹⁾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대상이 단순한지, 함께 정립된 것인지 하는 물음이 일정한 언어게임의 외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로 다른 언어게임이 언어라고 불릴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로 인정되기 위해 모두 갖추어야 할 하나의 구체적인 요소나 한정된 속성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무엇으로든 이름이 붙여지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지거나 구분될 만한 어떤 속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모든 언어게임의 집합을 이루는 구성물에는 그런 식으로 공통된 속성이 없다. 이것은 언어라는 개념이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마치 게임처럼, 언어에는 공통되는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비슷한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여러 개의 게임을 비교해 보면 A는 B와 비슷하고 B는 C와 다른 양상의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특정 종류의 사례들을 지시하기 위해 한 단어를 정확히 사용한다면, 각 사례들은 반드시 다른 사례들과 공통된 어떤 것을 가진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놀이(게임)’들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놀이(게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게임들이 공유하는 공통성질을 지시하고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가정이 틀렸다고 믿는다. 모든 게임이 공유하는 본질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가족유사성

9)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2006, 69-70p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란 세상에 대한 복사물처럼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림이나 지시물 같은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며 게임처럼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가능하게 해 주는 다양한 양식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언어의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언어 게임에 참여하여 직접 그 게임을 수행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이다. 그러나 그는 ‘언어 게임’을 언어의 본질이나 언어의 일반적인 본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 즉 모든 언어 게임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 게임의 본성이나 공통적인 속성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수많은 언어 게임을 보여 주면서 그 각각의 언어 게임들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게임’들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게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게임들이 공유하는 공통성질을 지시하고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가정이 틀렸다고 믿는다. 모든 게임이 공유하는 본질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유사성들을 “가족 유사성”이란 낱말에 의해서 말고는 더 잘 특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몸집, 용모,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등 한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사성들은 그렇게 겹치고 교차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나는 ‘놀이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10)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서로 닮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전 구성원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성질을 공유하

1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2006, p70-71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 전체에서 단일하고 일반적인 공통성질이 발견되기 보다는 특정 유형의 유사성 정도만 중복되며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모든 활동들이 모두 공유하는 공통본질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게임'이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중첩되고 교차되는 유사성을 지칭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가족 유사성'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혼란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를 '일반성에 대한 갈망'이라고 보았다. 언어의 '가족 유사성'은 언어에 '일반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며 '파리통'에 빠진 철학을 구해주는 근거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가족이라고 하였을 때, 둘은 옆모습이 닮았지만 앞모습은 닮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에 또 다른 가족과는 앞모습은 닮았으나 옆모습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셋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은 없다. 이처럼 '언어'는 단일한 현상의 이름이 아니고, 무한정한 수의 언어 게임이란 것으로 구성된 집합의 이름이다. 언어를 단일하고 명료한 하나의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마치 게임이 하나뿐인 것처럼 모든 게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게임의 수는 무한정한 것이다. 새로 출현할 언어 게임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언어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4. 도구와 같은 언어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도구에 비유하였다. 어떤 연장에도 고유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단어나 문장에 단 하나의 본질적인 용법이란 없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의 출현은 언어의 논리를 잘못 이해한 징후라고 말했다. 그는 사물들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을 모든 문맥에서 떠나서 말하려 하고 절대적인 용어들로 생각하려는 것이 철학자들의 전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어의 논리가 어떻게, 왜 잘못 이해되었는지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것은 경험적인 문제가 아니고 언어의 논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철학적 문제의 해결은 정밀하게 분석된 문장의 참다운 기능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을 통해, 그리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언어 게임의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철학의 과제는 순전이 기술적이 되는데, 문장이 얼마나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서술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낱말들을 그것의 형이상학적 사용으로부터 그것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였다.

5. 사적 언어 논증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수많은 언어 게임들이 있고, 그 수많은 언어 게임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사용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규칙이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동의를 받아야 규칙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언어 게임의 규칙 역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언어 게임은 공적(公的)인 성격을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사적인 언어 게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표명하지 않는다면(신음하지 않는다면,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다면, 등등) 어찌 될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린아이에게 '치통'이란 낱말의 사용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11)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사적 언어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적 언어들 중에서 감정과 통증을 표현하는 언어(“배고프다.”, “아프다.” 등)도 있다. 통증이나 감정은 느끼고 있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자식이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가능성은 이것이다. 즉 낱말들은 감각의 근원적인, 자연적인 표현과 결합되고,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다쳐서 울부짖는다; 그리고 그때 어른들은 아이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외침들을 그리고 나중에는 문장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아이에게 새로운 고통 행동을 가르친다.¹²⁾

어린 아이가 자연적인 표현인 찡그림과 울음으로 통증을 표현할 때, 어른들은 아이에게 ‘많이 아프겠구나.’하고 말하게 된다. 이 때 아이는 ‘아프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배우게 되고 그 표현을 똑같이 통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찡그림이나 울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아프다’와 같은 언어적 표현은 언어 게임을 통해 학습되는 표현이다. 통증은 본인만이 느낄 수 있지만 그 통증을 표현하는 찡그림과 울음, ‘아프다’는 낱말 등은 공적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사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공적인 틀로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적 감각이나

1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2006, p169

12) 같은책, p164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감정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경우의 언어는 사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감각의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통증을 표현하지 않고 지냈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치통이라는 낱말의 사용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게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과 낱말을 결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적 언어의 불가능함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언어의 공적인 성격이었다.

Ⅲ. 결론

후설을 빼놓은 현상학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을 빼놓은 분석철학은 이야기될 수 없다. 그만큼 비트겐슈타인은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철학적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독창적인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 즉 존재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그러한 학문들에 쓰이는 언어에 대한 2차적 학문임을 새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철학관은 그의 철학적 발전의 초기나 후기에서나 일관되어 있다. 바꿔 말해서 그는 철학이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적 철학 혹은 언어철학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그의 언어철학의 핵심은 의미론이다. 즉 그는 한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밝혀보려고 했다. 그것은 그의 아주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용도의미론'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용도를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의 삶과 밀착시켰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철학이 1차적 언어의 분석이긴 하지만, 그러한 분석은 언어 아닌 것, 즉 삶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 이해된다고

■ 김경량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및 후기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결론은 그의 철학과 정반대의 철학을 주장했던 현상학자 후설이 모든 형태의 앎은 궁극적으로 ‘삶의 세계’에 결부되었다고 내린 결론과 결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앎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왜냐하면, 가령 종교적 언어가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과학적 언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경우에도 그 말이 서술하는 세계가 옳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이나 과학이 가지고 오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철학은 우선 그러한 정보들을 전하는 언어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 언어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철학은 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재미에만 완전히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분석을 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적의 상황(무엇을 하기에 알맞고 마땅한 상황)에 대한 진리를 알아내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역, 책세상, 2008.
- R. M. 화이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론 이렇게 읽어야 한다』, 곽강제 역, 서광사, 2011.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2006.